

핵폐기·국가안보 염원 특별기도회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 한반도 평화 염원 특별기도회 개최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이하 지도자협)는 지난 3월 22일(목) 오전 7시 30분 여전도회관 종려나무 그늘에서 국가안보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지도자협은 이날 시국선언문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약속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정치인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안녕과 국가번영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시국선언문은 또 “한반도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국회는 국민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권을 행사하여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선언했다.

희망나눔재단, 제1회 시상식 및 나눔 행사

“한국교회, 건강하게 세워져 귀하게 쓰임받길”



희망나눔재단(이사장 이정익 목사) 제1회 시상식 및 나눔 행사가 지난 3월 22일(목) 서울 신촌성결교회(담임 박노훈 목사) 아천홀에서 열려, 한국교회와 건강하게 세워져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나눔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우수 저서 및 논문 시상식과 목회

자 세움 지원, 제3세계 어린이 지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재단을 설립하면서 신학자 지원 프로그램, 지진 목회자들을 세워주는 프로그램, 선교 지원 프로그램 등 세 가지를 준비해 왔다”면서,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갖고 돌아왔

만 뚜렷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며 마음 놓고 연구하지 못하는 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제해서 격려가 되면 좋겠다. 신학자 우수 논문을 발굴하고 저서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자, 이름을 지우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6분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심사에는 최종진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를 비롯해 유석성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 김명용 박사(장신대 전 총장), 이상지 총장(호서대), 왕대일 박사(감신대) 등이 참여했다. 접수된 논문은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14편, 해외학술지 게재 논문 16편, 단행본 13편 등 모두 43편이었다.

우수 저서 부문에는 채영삼 교수(백석대)·장동신 교수(노스웨스트 신학대학원)가, 우수 외국어 논문에는 장세훈 박사(국제신대)가, 우수 신학자에는 장기영 박사(서울신대)·조호형 박사(총신대)가 각각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한홍교 대표회장 취임 및 신학세미나도 가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제32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3월 23일(금) 오전11시 서울 종로5가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드려졌다.

취임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협의회 서기 조조복 목사의 사회로 호헌총회 서기 이형규 목사의 대표기도, 진리총회 김은임 목사의 성경봉독, 천양지역자 서소희 전도사의 특별찬양, 예정영성총회 총회장 선헌규 목사의 마 5:38-45 말씀을 본문으로 한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선헌규 목사는 “유대교는 홍해를 건너고, 기독교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누가 5리를 가지면 10리를 같이 가라고 하셨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성공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국가안



정과 통일을 위하여 기독교대한자유감리회 박수일 목사가, ‘한국교회와 협의의 발전을 위하여’ 예정세계선교연합총회 이만나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예배는 이어 도강목 목사의 헌금송, 오순절총회 총무 오현관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제32대 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의 취임사, 기

독교대한자유감리회 감독 이의근 목사의 취임대 증정, 한홍교 목사의 임원인증서 전달, 중부지회장 진공열 목사의 격려사, 일반교회 세우기운동본부 회장 김주삼 목사의 축사,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광고, 기독교성경원 형(본집)회복연합 교명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 ‘제7차 신학세미나’ 개최

임준식 대표회장 “이단 규정과 해제, 정확한 기준 세워져야”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대표회장 임준식 목사)는 지난 3월 22일(목)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제7차 신학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국이협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한 단계 더 큰 부흥과 도약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단 규정과 해체에 정

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이 비진리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 한국교회를 복음과 진리로 세워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와 이승구 교수(합동신

학대학원대학교)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승구 교수는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세계관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한국의 전통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비교 분석하며 기독교인들이 사바니즘의 영향과 기복주의를 벗어나 순전한 기독교적 가치관과 믿음을 지켜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가장 오래됐고 가장 뿌리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통적 요소는 사바니즘”이라며 “이전 시대의 불교도들이 상당히 사바니즘적 불교도가 되고, 유교적 제사를 하던 사람들이 조상신이 복주기를 바라며 제사를 모시는 사바니즘적 경향을 띤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성경적 개념에 유의하지 않으면 사바니즘적 기독교도가 되기 쉽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신학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욱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민주주의 사수하는 국민 의식 절실”

재경영남장로회, 건국7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한국기독교재경영남장로회(대표회장 김우신·사무총장 김형원 장로)는 지난 3월 13일(화)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한민국건국 70주년기념 특별강연회’를 개최하고 건국이념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회 제1부 예배는 공동회장 강부영 장로의 인도로 공동회장 이재호 장로가 기도에 이어 신32:7말씀을 본문으로 자녀들이 부모세대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예정합동 증경총회장 장차남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오늘의 심화된 세대 간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식민지 생활과 해방, 민주화와 경제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온 부모세대와 고난과 어려웠던 날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의 길을 은혜롭게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와 민족, 남북통일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공동회장 윤경원 장로가 마무리 기도를 했다.

제2부 특별강연회에서는 공동회장 권승달 장로의 사회로 공동회장 윤시영 장로의 기도, 대표회장 김우신 장로의 인사말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에 나선 조갑제 대표(원

간조선 사장, 현 조갑제닷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외해와 미군철수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하면서 외교적인 대화로 시간 끌기를 계속할 수도 있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좌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일체감과 분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CTS기독교TV 제 2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당기순이익 18억4천만원, 9년 연속 흑자 내

CTS기독교TV는 3월 29일(목) 오전 11시에 CTS멀티미디어센터 11층 컨벤션홀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갖고 신임 고정원 사장 선임하여 보고 이사 14명(신임 5명, 중임 8명, 임기만료 1명)을 승인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스기갑, 장학일 목사(신임), 장세근 장로(신임), △통합, 김경오 장로(중임), 이용기 장로(신임), △합동, 고영기 목사(중임), 최우식 목사(중임), 김창수 목사(임기만료), △기성, 김진호

목사(중임), 윤희희 목사(신임), △고신, 김홍석 목사(신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중임), △경영주 추천이사 박래창 장로(연임), 홍광 장로(연임), 박광식 장로(연임)를 이사로 승인했다.

이날 제1부 예배에서는 공동대표이사 최기학 목사의 인도로 최우식 목사(예정장 합동총무)의 대표기도, 최우학 목사(공동대표이사)가 복음과 함께 기억될 이름(막 14:1-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최우학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회의는 의장 최기학 목사(공동대표이사)의 사회로 회장 감경철 장로의 인사, 경영본부장의 회사경영 보고, 2018 사업계획 보고 및 승인, 사장 선임 보고, 공익재단법인 보고, 감사 김해철 목사가 감사보고를 했다.



세기총, 희망봉사단과 나눔봉사 함께 해

이주민봉사단과 함께 제6회기 출발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세기총)는 지난 3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부근 봉사단체인 신생교회에서 대한민국이주민(다문화가정) 희망봉사단과 함께 봉사를 가졌다.

이날 봉사는 세기총 임원들과 사모들 그리고 지난해 세기총에서 조직한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인 결혼이주민여성 10명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였다.

봉사는 오전 11시에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드리는 밥사랑 나눔예배’로 시작됐다. 기도 후 김군배 목사(미안노선교사), 격려사에 원종문 목사(상임회장), 봉한기도에 나독한 장로(범인감사), 인사 및 광고에 신광수 목사(사무총장), 축도로 최낙신 목사(상임회장), 식사기도에 전영현 목사(상임회장)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설교는 세기총 제6대 신임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돌 8:28 말씀을 본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



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에 이어 목도리와 세기총 상임회장인 최낙신 목사님이 후원해 주신 알로에 에센스 크림을 참여한 봉사자들과 함께 일일이 나누어 주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이어 밥과 봉사를 가졌다.

이번에도 참여한 이주민가정들은 봉사를 통해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을 섬기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주민 가정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CM학위취득 축하 감사예배 드려

NCM TV 방송문학 신인시상식도 함께

International Christian College(이사장 오승영 박사, 한국캠퍼스 총장 양창부 박사/이하 ICC)는 지난 3월 27일(화) 오후2시 부천시 송내동 국제기독교선교방송국 공개홀에서 학위취득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감사예배는 교무처장 강필희 목사 사회로 학장 양재일 박사의 기도, 이사장 오승영 박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오승영 박사는 담전 4:6-16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일꾼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

를 통해 “좋은 일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구원의 말씀을 증거 하는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학위 받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박사학위 수여는 이사장 오승영 박사의 학교소개, ICC한국영인캠퍼스 총장 양창부 박사의 수여자 약력소개, 문학박사 류현상 박사·박재현 박사·강순구 박사에게 학위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수여식은 기념포 수여, 학위수여자들의 인사, 인천대학교 전 시민대학장 유승우 박사의 축사 후 양창부 박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7차 정기지방회, 2박 3일 동안

필리핀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필리핀지방회 27차 정기지방회가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호 텔서울에서 "ENLARGE TERRITORY" (대상 4:9-10)라는 주제로 2박 3일동안 있었다. 각 지 지역지에서 모여든 12명의 선교사와 4명의 자녀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 청년국장 이경진 목사, 교육국장 오세준 목사가 강사로 참석해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있었다.

선교국장 임형순 목사는 개회예배에서 '하나님과 관계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둘째날 특강 1로 청년국장 이경진 목사는 '직업마인드'라는 주제로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의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특강2는 교육국장 오세준 목사가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강제가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빙고게임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정기지방회에서는 회장인 이용수 목사가개인적인 사유로 회장직을 사임하여 부회장인 김 회장 목사가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정기지방회, 제주드림교회에서 개최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김진수 목사)는 지난 3월 25일(일) 오후 5시 서귀포시 제주드림교

회(담임 성종경 목사)에서 제67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1부 경건예배에서는 성종경 목사가 살전 1: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동안 우리의 목양지역을 통

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켜보신 주님으로부터 다른 책임할 것이 없다고 칭찬 듣고 위로 받는 목회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지방회장과 총무를 현 임원 그대로 한해 더 연인시키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제주지방회 회원교회들이 연합하여 선교지역지 방문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수년 내에 모든 회원교회가 각 교회마다 자체 예배당을 확보하는 데 소망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어서 각 회원교회마다 근황을 소개하며 교회별로 당면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합심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인근 레스토랑에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지방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3월 22일(목) 오전 11시 순복음복된교회에서 제58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은주 목사의 사회로 진행이 되어 부회장 최정식 목사의 대표기도와 재무 박우진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장영기 목사의 설교, 회계 배영래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장 목사는 수 1:1-9 말씀을 본문으로 어느 때 보다도 힘이 있고 감동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전에 '반드시'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며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삶에 있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그것은 이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필리핀 선교사로 나갈 계획인데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장 목사는 지난 15년여 전부터 필리핀에 선교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담임목사를 은퇴 하고 필리핀으로 5월부터 선교사로 갈 계획이다.

순서에 이어 모든 회부처리를 끝내고

새임원을 선임했는데 새임원으로는 회장 최정식 목사, 부회장 이영애 목사, 총무 조은주 목사, 서기 조길수 목사, 회계 배영래 목사, 재무 박우진 목사가 헌신하기로 했다.

모든 회의 순서가 끝나고 신입회장 최정식 목사가 애찬을 준비했으며 이어서 총회장 김영인 목사의 축도로 회의를 마쳤다.

인천주비전교회 창립감사예배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창모/인천국제순복음교회는 지난 3월 24일 인천주비전교회(담임 김영수 목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성진 목사(총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회계 이한숙 목사(순복음사랑교회)의 기도,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인천국제순복음교회)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이 목사는 행 8:26-40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과 동행한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므로 전도자 빌립처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며 오늘 창립되는 주비전 교회가 인천 지역은 물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창립 선포, 증경회장 심현일 목사(임마누엘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심재덕 목사(주안 복된

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영수 목사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창립예배를 마치고 주비전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내 제자가 되리라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3월 26일(일) 정읍순복음중앙교회(담임 박상규 목사)에서 제34차 정기지방회를 열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홍종화 목사의 기도, 회장 박상규 목사의 요 15:7-9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김중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지방회에서는 각종 지방회 업무를 처리하고, 정기지방회에서는 새임원을 선출하였다. 회장 박상규 목사, 부회장 심혜원 목사, 총무 양희철 목사, 서기 김훈배 목사,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가 새 임원으로 선출



되었다. 지방회를 마친 후 정읍순복음중앙교회에 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김성욱 대표 특강도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3월 9일(금) 오전 11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모임을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대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김주성 목사(순복음민들레교회)의 성경봉독, 김성욱 대표(미래정경연구소 소장, 리버티헤럴드 대표)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강의, 부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



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지방회는 회장 조병희 목사의 진행으로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정기지방회,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

영남동지방회

지난 3월 20일(화) 오전 11시 한소망교회(담임 박기만 목사)에서 제27차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 정기지방회가 열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신홍섭 목사의 사회, 부회장 권정식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출 20:23-25 말씀을 본문으로 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한소망교회의 섬김과 사랑으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 뒤 2부 회부처리는 회장 이성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행정 업무와 모든 보고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신입원 선출에서는 2017



년 회기의 임원들이 그대로 1년 더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은혜로운 회부처리까지 잘 마치고 증경

회장 박기만 목사의 축복기도로 모든 순서를 폐하며 이후 다과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지방회, 지혜롭고 순결하게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는 지난 3월 22일(목) 이목순복음교회(담임 이봉근 목사)에서 2018년 제57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용 목사(충무)의 사회, 김경준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 신병설 목사(서기)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상용 목사(교단 증경총회장)가 마 10:16 말씀을 본문으로 '양과 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김 목사는 설교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저리 가운데 보낸 갈매기 이리저리 동물이 양을 보면 마치 쥐를 만난 고양이처럼 사정없이 달려들어 잡아먹는다. 양은 자기를 해치려 하는 이리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지켜낼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망도 가지 못하는 연약한 동물이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보면 양을 움켜잡으려 우리를 그냥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 뱀은 자신이 위험하다 판단했을 때에는 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 피하기 때문에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공격에 마주치게 될 때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전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장 최동순 목사는 오순남 전도사, 양승혁 전도사(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게 전도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회 산하 11개 교회 1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다음 이봉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총무보고, 재무 및 회계 감사보고, 각 위원회보고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지방회 신 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57차 신입원 선출에서는 지방회장에 오병용 목사(이목 순복음교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후영 순복음교회) 총무 김용 목사(세희 망교회)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 순복음교회) 재무 조재호 목사(창대교회) 회계 민병훈 목사(예광순복음교회)가 뽑혀 한회기 동안 지방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되었다.

이어 신임 지방회장 인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단과 지방회 산하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자리를 옮겨 이목순복음교회에서 마련한 오찬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 생명의 말씀 ■



심재덕 목사

· 주안복원교회
· 인천지방회 경정회장

가까이 제실 때에 부르라

(사 55:6~9)

두지 못하고 또 멀리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든 결과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현재 10년, 20년 전이나 반세기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식수준이 발전하였고 소유가 풍성하며 생활용품이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편리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고 화려해졌습니다.

값진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외감과 낙오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후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 외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많은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질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만 기쁨도 없었고 참 만족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예수 믿고 핍박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굶고 나로서

도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조상을 앞을 내뽐나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할례시대 때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추위털면서도 예수 믿고 배고픈 중에서도 찬송 소리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복음화와 축복을 위해서 목마르게 기도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안일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기를 놓치면 국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야 할 분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그런 하전한 마음, 허구심, 헛된 마음, 욕심이 사라지고 맙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선한 목자를 멀리 두고 참 나의 아버지를 멀리 두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고 계십니다. 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요” 마 6:6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큰 위기에 빠져있어서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받냈으로 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이 됩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여주십니다.

동 정

홀트아동복지회 기부 캠페인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와 코트야드 페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참여형 기부 캠페인과 객실 패키지를

결합한 ‘꽃길만 걷자 패키지’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패키지 수익금의 일부는 홀트아동복지회 아이들의 양육 기금으로 기부한다.

세기총 나눔봉사로 6회기 출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6회기 첫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나눔 봉사를

시작했다. 지난 3월 19일(월) 서울역 부근 봉사단체인 신성교회에서 대한민국 이주인 희망봉사단과 함께 섬김의 사역을 실시했다. 이날은 세기총 임원들과 목회자 사모 그리고 ‘대한민국이주인 희망봉사단’ 10여 명이 참여했다.

싱크머니 자원협약 체결



청소년금융교육으로 13년간 협력해오고 있는 YWCA(한영수 회장)와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 21일(수) 서울 명동 한

국YWCA강당에서 열세 번 째 싱크머니 자원협약을 가졌다.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금융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싱크머니는 청소년이 돈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건전한 경제시민으로 성장하게 돕는 프로그램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중앙후원회



글로벌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지난 3월 28일(수)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본부에서 중앙

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중앙후원회는 재단과 함께 국내 나눔 문화 확산 및 아동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결성됐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누구를 위한 방송들인가?

언론들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계도(啓導)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먼저 깨어나고, 공정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방송을 하고, 국민과 시청자 무시행위를 금해야 한다.

최근 한국의 방송사들을 보면, 편파/왜곡을 떠나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다. 참으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든다.

3월 28일 공영방송이자, 국가재난방송인 KBS는 <추적60분>을 통해, 8년 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문제를 거론하는 “8년 만의 공개,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천안함 문제를 다시 제기하였다.

8년 전에도 <추적60분>을 통해,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방송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편파 왜곡 보도’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는 정권이 바뀌자, 같은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때 당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전파남비이며, 국민들이 낸 시청료에서 지원받는 공영방송의 후안무치인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국방부에서도 이를 반박했는데, 2010년 당시, 민/관/군 합동조사단 70~80명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16일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었음이 밝혀진 것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하여, 이 방송물을 평가하기를,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의 기조로 흘렸다고 평가한다. 그

리면서 “KBS 예산을,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를 도외주는 방송에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고 개탄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한국 언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에 방송의 간판을 바꾸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한다. KBS는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을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공영방송 MBC에서는 노조 출신이 사장으로 바뀐 가운데, 지난 2012년 MBC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기자 및 직원 등 140여명에게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본인 동의 없이 열어보는 등의 행태가 벌어

져,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다.

소위 ‘블랙리스트’로 방송 권력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이미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정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지만 한국의 대표적 언론들이 이정도인지는 몰랐다. 정론을 펼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보도하고, 권력과 밀착하여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주는 언론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언론이 권력의 종이 되는 한, 언론도 망하고, 권력도 부패하고, 나라의 미래도 암

담해지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런가하면, SBS방송은 지난 27일 <8시 뉴스>에서 ‘전 세계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된 것을 그대로 방송에 사용하였다. 이 방송은 한국방송인가, 일본 방송인가? 물론 사과방송을 했지만, 이미 모든 방송이 나간 뒤여서,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구기게 하였다.

jtbc도 같은 실수를 하였다. 물론 사과하였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뭔가? 방송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제는 언론들이 국민들을 속이거나, 계도(啓導)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이 먼저 깨어나고, 공정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방송을 하고, 국민과 시청자 무시행위를 금해야 한다. 언론이 적폐를 청산하고 하려면, 자신들은 적폐를 만들어 간다면, 그 언론을 누가 신뢰하고 인정하려 하겠는가? 지금 우리 언론들은 유신시대 정부에 편향되게 보도하면, 그 언론들과 무엇이 다른가?

국내 결혼중개업 전국지사 모집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사편 16:5-6)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불신은

“매칭 즉 만나게 해주는 일”에 있습니다.

결혼 114는 “매칭문제”를 완전 해결하였습니다.

매칭은 본사 100% 전담, 지사는 영업 전담

1. 4차 산업혁명의 정보 공유 시스템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셀프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 스스로 희망하는 상대방을 온라인에서 직접 검색하여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2. 회원 중에서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시간상 여건이 안 되는 회원이 본사에 매칭을 요청하면 본사 근무 “매칭 전문 매니저의 전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정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는 종교별, 지역별, 나이별로 “결혼미팅 파티”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연간 기본적으로 3회를 제공하며(최대 8회까지) 한 번 미팅에서 최대 40명의 상대방(8회 참석 320명)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신용과 정직을 다하는 기업 www.결혼114.com 는 다릅니다. 12년간의 경험과 많은 투자로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결혼중개업체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사명 ♡

1. 오직 말씀으로 2. 구제와 선교 3. 청년일자리 창출과 노후 생활

■ 지사장 조건

1. 청년 창업자, 노후생활을 위한 창업자 환영
2. 세례교인 이상으로 담임 목사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분
3. 온유한 성품과 열정이 있으신 분



■ 결혼114의 서비스 비교분석자료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35만원	3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결혼 114의 약속 ♡

본사가 홍보하여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1인당 5만원씩 적립하여 매월 전체 지사 1/N의 일로 분배하여 지사 계약기간 중에 기본 수입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신사업의 기회(추가수입)

1. 해외 여행업 2. 국제결혼중개업 3. 국제결혼신문

■ 협력업체 모집

현재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 계신 업체로서 부담 비용일체 없이 상담 후 업무협약서 체결

시사포커스 / 차별금지법 제정안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부의 졸속 헌법 개정안 강력 반대”

동반연(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3월 2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부의 졸속 헌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작된 헌법 개정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기본권을 포함하여 헌법 전체를 개정하였다. 불과 한 달 만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다 보니 국민적 논의가 매우 미흡한 졸속개헌일 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는 동성에 차별금지, 동성결혼 합법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등을 반대해 왔다. 다행히 발표된 정부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과 같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은 없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환영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 정부의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개정안 제11조 2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성별 또는 장애’ 다음에 추가된 ‘등’으로 말미암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내용은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문구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차별 시정 대상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되면, 남성, 여성 이외의 제3의 성들이 인정되고, 결국 이 조항은 남녀 간의 평등이 아니라 모든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서구에 서와 같이 교육, 교육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국민들의 언론,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 등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 제11조 1항은 ‘등’이 없이 차별금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반면에, 제11조 2항은 ‘등으로 인한’이라고 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11조 2항의 ‘등’을 삭제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든지, 개정안 제11조 1항과 2항을 합치기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평등권 보장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등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로서, ‘단, 이러한 차별상태의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이 타인의 표현, 양심, 학문, 종교 등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둘째, 개정안 제25조에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8세에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포함되며, 아직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201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도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중략)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만약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전개되어, 초, 중, 고등학생 등의 전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지지하며 찬성하라고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선거 때마다 고3 학생들이 관련된 이슈에 의해 선거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학제를 개편하든지, 선거권 허용연령이 현행대로 19세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셋째, 개정안 제36조 1항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자기 결정권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구의 사례를 보면 성교육, 성전환 등의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와 부모의 양육권 사이에 조화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하고 본질적인 침해가 없는 한,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시킬 권리와 의무가 우선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된 부모의 권리에 의하여 자녀들에게 폐해가 주어지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넷째,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제11조의 ‘지방보편국가’ 선언이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지방보편국가가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근거하여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는 지방인권조례가 차별금지법에 상충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지방마다 동성에, 동성결혼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체 국민간의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한 현행 헌

법과 법령에 충돌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등을 삭제하거나, 갈등을 방지할 장치를 먼저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신설된 개정안 제42조 제2항에는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의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의 재판을 통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고 옹호조장하고 있으므로 군 복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을 심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개정안 제42조 제2항을 “국가는 군에서의 존엄성 침해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반연은 3월 8일자 주요 4대 신문 전면광고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국민적 논의를 모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짧은 시간동안,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짜고치는 졸속 개헌’이 되는 것을 심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헌법이 분명한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밝혔다.

그동안 국회개헌특위의 논의나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개정안 등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내용이 강하게 제시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개정안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위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개정안의 여러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특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유들이 포함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되기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2018. 3. 26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충남인권조례 폐지 저지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라 충청남도 의회가 지난 3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뒤 충청남도지사의 제의 요구에 따라 제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를 막기 위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달고 요청하였다고 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러한 행동은 충남 도민과 도의회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권 파쇼적 행동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총회에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의 218개 권고 중 성소수자에 대한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성에 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하려는 개탄스러운 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국민들 앞에 부끄를 꿇고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4번의 재판을 통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판결하고, 또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국가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여 국민적 의사와 반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 활동들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왔다.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고, 인권보도조례를 통해 언론에 재갈을 채우는 행동 등을 서슴지 않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인권위는 최근에 외서는 다자성에조차 성적지향으로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도덕성이다.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이고, 에이즈 감염자는 일반인들에 비하여 25~30년 정도 수명이 짧다.

세계적으로는 에이즈 감염이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은 지난 15년간 20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데도, 인권위가 동성애는 선천적이며 또한 인권이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의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동성애가 인권이라면, 흡연, 도박, 마약도 인권이어야 하며, 다자성에, 소아성에,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부딪혀 무산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군대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을 위한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뿐만 아니라, 귀아추제를 지원하는 등 끊임없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 평행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많은 국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억류된 국민, 강제 복종 탈북민 및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침묵하여 왔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여성 강제추행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인권침해사건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투운동을 통해서 밝혀졌다.

흡연을 옹호 조정하는 것이 흡연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듯이,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는 것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면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행위) 자체를 존중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적지향과 관련한 진정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지향(동성애 등)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가 대대한 차별을 받는 것처럼 부풀려, 차별금지법과 지방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권위가, 이제는 자신의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관철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이므로써 대한민국의 자주권마저 훼손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다. 동반연은 이렇게 도에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청남도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을 방문해달고 요청한 것은, 충청남도 의회와 도민의 자주적 결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일을 외세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사대주의적 발상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충청남도 의회와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초법적이고 독재적 작태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행위가 없었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한 헌법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것은 자체 생존과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왜곡된 인권 개념을 버리고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위에서 군림하며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국민들을 세뇌하려는 파쇼적 태도 자체가 반인권적임을 깨닫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섬기려는 자기 개혁과 반성을 하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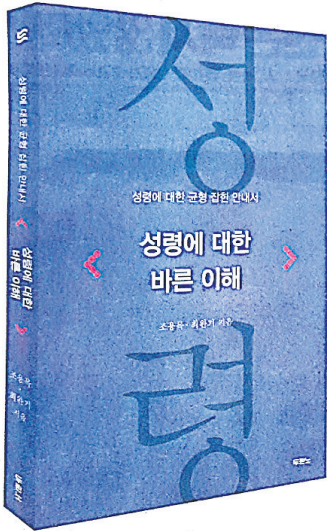
동반연은 충청남도 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순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려고 유엔을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작태로 국민의 주권에 도전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기관처럼 행세를 하는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유엔에 보낸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담당자들을 분책하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부끄를 꿇고 사과하고 사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8. 3. 26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번져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정기지방회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유관영 목사)는 제34차 정기지방회를 지난 3월 20일(화) 오전 11시에 익산 함라순복음교회(이광호 목사 사무)에서 가졌다.

이날 1부 개회예배는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사회로 증경회장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기도, 증경회장 최병진 목사(익산은혜외진리교회)의 설교, 증경회장 김중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으며 예배 후에는 종교인과 세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종교인과 세의 정보를 전달하였다.

이어 2부 정기지방회에서 각종 회부처리를 은혜가운데 잘 처리하였으며 신임 임원



을 선출하였다. 회장 유관영 목사(순복음종은나무교회), 총무 최강욱 목사(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광호 목사(함라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벤엘전원교회)가 회원만장일치로 선출 되었으며 정기지방회 후 함

라순복음교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함께 하고 교제의 시간으로 서천국립생태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저녁식사는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유관영 목사가 제공했다.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3월 29일(목) 오전 11시 은혜충만교회(담임 홍현철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조정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기도, 조정화 목사의 성경봉독,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외진리교회)의 고전 12:2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 후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헌금기도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지방회는 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사회로 각 부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임원선출은 작년에 수고한 임원을 그대로 유임하기로 하였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계·재무: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

이후 유봉수 목사의 기도로 정기지방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은혜충만교회(담임 홍현철 목사)에서 대접하는 풍성한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정기지방회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3월 29일(화) 오전 11시 경산 행복한순복음교회(담임 윤철희 목사)에서 제 27차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정진학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도병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

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 직전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삼하 16:5-14 말씀을 다윗의 중심을 보고 배워 믿음으로 승리하자고 강조하면서 다윗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우리의 사역도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어서 회계 윤철희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지방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헌금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회부처리가 이어졌다.

2부는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총무 정진학 목사의 회원 점명하고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록 낭독과 임원보고, 총무보고가 이어졌고, 이어서 감사 진영갑 목사(주찬양교회)의 감사보고와 회계 윤철희 목사의 재무 및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결의 사항으로 회장 선출은 회원의 요구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김영준 목사가 재 선출되고 나머지 임원은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기타 토의로 들어가서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대구경북지방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총회 사무국과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지방회가 되자고 결의하였다.

이어서 증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의 기도로 정기지방회의 임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마치고 장소를 옮겨 행복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힌들순복음교회 창립예배, 총력전도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3월 29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힌들순복음교회(담임 최은주 전도사)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예배는 총무 이봉기 목사(연리울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순형 목사(이침빛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신근희 목사(구리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과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에바디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석구 목사는 행 20:12-25 말씀을 본문으로 '비정한 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담임교역자로써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정한 각오와 마음 자세로 목회에 임할 것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하여도 모든 것을 각오하고 목회하는 자에게 두려움은 사라



질 것이다. 또한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어 말씀과 성령에 붙들림 받는 목회자가 될 것과 선교자적 사명으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교

회)의 축사와 재무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 기도, 최은주 전도사의 감사 인사말과 광고가 있은 후 부회장 한상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힌들순복음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열린축복교회 창립 17주년 및 권사 취임 감사예배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3월 25일(주일) 오후 3시 30분, 열린축복교회(담임 전하세 목사)에서 창립 17주년 및 권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열린축복교회 전하세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병호 목사의 기도, 서기 임형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최은규 목사(선한목자교회)의 설교, 회계 최금자 목사의 헌금기도, 그리고 설교자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골 3:22-24 말씀을 본문으로



'주께 하듯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의 임직자는 교회 새 가족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임직 후보자를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안수위원장 최은규

목사의 사회로 이미지권사의 임직식이 이어졌고, 안수위원 증경회장 김홍광 목사의 권면과 안수위원 직전회장 정광호 목사의 축사, 그리고 안수위원 전하세 담임목사의 광고 후 최은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아름답게 마쳤다.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3월 27일(화) 온전교회(담임 탁정신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열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순서는 다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2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사 35:5-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회장 탁정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3부 정기지방회는 회장 탁정신 목사의 진



행으로 서기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 기록 서기 선출, 총무 오세준 목사의 전 회의록 낭독이 이어졌으며, 보고사항으로 2017년 행사 보고, 총무 및 서기 보고, 감사 보고, 재무 보고, 회계보고를 총무 오세준 목사, 증경회

장 한승수 목사, 이경진 목사 등이 각각 진행하였다.

이후 새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신규 임원교제 및 안전 토의 후 임원진은 유임하기로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PARTY FIESTA

파티 피에스타 뷔페

피에스타 뷔페에서는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에스타 뷔페에서는 돌잔치전문, 칠순 · 회갑, 각종행사 작은 결혼식

● 출장뷔페 ●
(교회 예식 피로연, 개업식, 체육대회)

● 편리한 교통!
다양한 최고급 음식!
7호선 독점 유원지역 4번출구 앞 ●●

02)461-3300, 010-5327-7660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주제로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대표이사 이광용 목사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대표이사 이광용 목사, 이하 한부연)는 지난 4월 1일 부활주일 오후 4시 양천구 목동중앙서

로 4길 5 목동인교회(담임 조명숙 목사)에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을 찬양했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라는 주제 아래 드린 이날 예배는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사)예장총연 상임회장 차득환 목사의 대표기

도, 예장합동총연 부총회장 김요나 목사의 성경봉독 목동인교회 찬양단의 찬양, 사)한부연 이사 김마리 목사의 색소폰연주, 사)예장총연 자문위원 조요한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눅 24:1-12 말씀을 본문으로 '한식 후 첫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걱정할 일들이 태산 같이 많지만 사망권세에 쫓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특별기도로 '국가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국가와 남북통일을 위해', '국가안보와 핵폐기를 위해', '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대하여', '한국복음화와 성령충만을 위해', '사)예장총연과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를 위해' 오선미 목사, 김병선 목사, 정찬희 목사, 김수영 목사, 하석수 목사, 안병삼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한부연 이사 이광익 목사의 '부활의 의미'를

주제로 한 특강, 사)예장총연 고분 김원식 목사의 축사, 사)예장총연 지도위원 강사랑 목사의 헌금기도, 목동인교회 담임 조명숙 목사의 인사말씀, 사)한부연 대표이사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청4동 어린이집 교사 8명에게 교사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2부 순서로 부활절 특별찬양시간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

2부 찬양 순서로 사)한부연 이사 손대영 목사의 인도로 사)한부연 감사 최명철 목사의 기도 후 각 기관과 회원들의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으며 사)예장총연 자문위원 황근옥 목사의 축도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및 찬양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은혜가운데 마쳤다.

한국교회의 부활절연합예배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 등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같이해 왔으며, 최근까지도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뿌리가 연합이라는 기반 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대 인류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의 연합의 운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
건강을 위한
힐링요

건강한 자연을 **빛**으로 조리한다!

■ 힐링요의 제품 구성

■ 알칼리 주전자(1.2ℓ / 1.8ℓ)

구성 : 본체, 뚜껑

재질 : 내열도자기 (본체) / 강화자기 (뚜껑)

1.2ℓ 규격 : 12.5 * H16 (cm) 뚜껑포함

1.8ℓ 규격 : 15 * H18 (cm) 뚜껑포함

■ 힐링요 기술의 과학적 규명

- 식재료별 힐링요를 이용한 조리 및 분석실험결과 (주다손, 서울대, 2013.12)
- 건강조리 도자기 '힐링요'를 이용한 조리메뉴얼의 과학적인 규명 (한양대학교, 2013.10)
- 힐링요 알칼리수를 이용한 여드름치료 실험사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2013.07)

▲ 힐링요 배짚잡기 세트

▲ 힐링요 회음부짚질기

▲ 힐링요 경추짚질기

▲ 힐링요 알칼리 머그

▲ 힐링요 생선구이

▲ 힐링요 건강조리

■ 힐링요의 신뢰성

힐링요 특허/성적서

한국 세라믹 기술원 유해물질 불검출 시험성서서 원적외선 발열도자기 특허증 한국 세라믹 기술원 열충격강도 시험성서서 한국 원적외선 응용 평가연구원 시험성서서

■ 언론과 소비자가 인정한 힐링요

● 그 외 MBC 생방송 좋은 아침 등 다수 언론매체에서 소개

문의 엄기설 목사(010-3002-0922)

삼성화재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한기연, 고난주간에 사랑나눔 봉사

한끼 금식하고 노숙인 200여 명에게 점심 대접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지난 3월 28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신생교회에서 고난주간 노숙인과 함께 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기연이 고난주간을 맞아 소속 회원 교단과 임원들 중심으로 점심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대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의미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끼를 대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기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노숙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밥퍼나눔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서 이동석 목사는 “당신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마 11:28)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세상에 서 지은 모든 죄의 무게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담당하셨다고 강조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

기 바란다”고 전했다.

예장 호헌 총회장 김효종 목사는 격려사에서 “물 한방울이 모여서 큰 바위에 구멍을 뚫는 힘이 된다”며 “한기연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과 나누는 작은 정성과 사랑이 모여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내 남편도 한 때 알콜 중독으로 가정에 큰 시련이 된 적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술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간증하면서 “여러분도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고 끊을 것은 분명히 끊는 결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기연 임직원과 여성위원회 회원 30여 명을 2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특히 한기연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고난주간에 사랑의나눔행사를 갖게 된 것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여성위원회가 나서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날 예배는 김예정 목사의 사회로 김혜정 권사의 기도, 이해경 목사의 봉헌찬양, 김은경 사모의 봉헌기도, 김효종 목사의 격려사, 김옥자 목사의 인사, 정윤혜 집사의 성경봉독, 공신영 전도사의 세소폰 연주,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마쳤다.

이날 서울역 신생교회(김원일 목사) 사)해돋는마을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옥자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한기연은 5월 가정에 달을 맞아 2월에는 미혼모자 위탁시설에 아기 기저귀와 신생아 용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7월에는 청소년위원회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시무하는 목동능력교회 주관으로 세 번째 밥퍼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천교회, 사순절 맞아 생명나눔예배 드려

2010년에 이어 두 번째 생명나눔예배, 107명 장기기증 등록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전합니다.”

지난 3월 18일(주일)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교회(담임목사 김동인)는 본부 이사장인 박진택 목사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박 목사는 아름다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생명나눔의 소중함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나눔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교했다.

박 목사는 설교를 통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나눠야 할 의무가 있다”며 “천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나누는 일에 모두 동참하자”라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을 독려했다.

김동인 담임목사 역시 “우리나라 생명나눔운동의 이 날 말씀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깨닫은 양천교회 성도 107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사순절을 맞아 매 주일 전국 각지에서 생명을 나누겠다는 교회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택 목사는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보여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기기증운동 활성화와 장기부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굿네이버스, ‘굿워터 프로젝트’ 캠페인 진행

아프리카 식수 문제 공감 위한 참여 프로그램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지난 3월 22일(목)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식수위생지원캠페인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굿워터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학교에 식수 및 위생 시설을 제공했을 때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소개하고, 많은 대중들이 지구촌 식수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학교 중 식수시설이 없는 곳은 49%, 위생시설이 없는 곳은 55%에 달한다. 또한, 아프리카 아동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걸어야 하는 거리는 6km로 하루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잠비아 내 학교를 대상으로 굿워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들이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었을 때 나타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번 2018년 굿워터 프로젝트

캠페인을 통해 소개했다.

굿워터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에 식수대가 설치되자 아동들은 물을 찾으며 가는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위생시설 및 교육을 제공하여 콜레라 등의 수인성 질병의 발병을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프리카 잠비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4시간 동안 물을 뜨러 가는 대신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는 질문에 아동들은 우리 예전 평범한 일상인 ‘축구하기’, ‘그림 그리기’, ‘공부하기’ 등을 답변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학교 단위로 결연하여 후원하는 장기후원자 ‘굿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학교와 결연을 하고 식수시설, 위생시설,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굿워터 패키지’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첫 번째로 굿 서포터즈가 지원하게 될 ‘잠비아 신학교’를 시작으로 많은 학교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세군, 사회 정화 위한 건전생활 캠페인 전개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3월 22일(목) 광화문 김리회관 앞에서 건전생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구세군의 건전생활 캠페인은 1921년부터 시작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전국적 캠페인 중의 하나로, 해마다 3월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사치풍조 추방과 절제운동을 촉구하는 기두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의 금주, 금연 등의 절제운동과 더불어 생명, 나눔, 보존, 경신, 빛을 핵심가치로 해 생명 살리기 운동, 나눔 실천 운동, 녹색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구세군 관계자는 “보통 절제는 물질적인 낭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스스로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에 있다”며 “최근 전 세계적으

로 불거진 ‘비투운동’ 역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 문제다. 범국민적으로 절제운동에 경각심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 임원회 개최

6월 5일~8일 대만에서 워크숍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총무협의회(회장 김경만 목사)는 지난 3월 29일(목)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임원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처리했다.

제1부 예배는 송재량 목사의 대표기도, 회장 김경만 목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요 16:24-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제2부 회의는 김경만 회장의 사회로 서기 서승원 목사의 회원점명 14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대만 워크숍의 건으로 6월 5일~8일, 3박 4일로 회원 부부동반 모임 4월 월례회에서는 종교인과 세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후에는 본회 주관으로 부흥회 및 세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보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전국여교역자국

2018춘계세미나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 위해 헌신 다짐

전국여교역자국 2018 춘계세미나

한순남 목사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한순남 목사) 2018 춘계세미나가 지난 4월 2일(월)~4일(수) 2박 3일간 전남 고흥군 녹동 순복음교회 회원들의 특송, 교단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교본, 대림번역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요 4:24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전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세미나는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를 강사로 열어 말씀으로 충만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 새롭게 헌신할 것을 작정하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

세미나는 첫날인 2일(월) 오후 4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춘계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교단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

작, 안전자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부산지방교회 회원들의 특송, 교단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교본, 대림번역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요 4:24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배에 성공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전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세미나는 교단 증경총회장 임종달 목사를 강사로 열어 말씀으로 충만 받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 새롭게 헌신할 것을 작정하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

세미나 강사
임종달 목사
증경총회장개회예배·설교
정부용 목사
교본·전직부총회장폐회예배·설교
신동숙 목사
자문대표기도
탁정신 목사
직선국장·교단재무부흥회·사회
김바울 목사
차장진행
조영란 목사
기획부장헌금기도
김순자 목사
홍보부장폐회예배·사회
조병희 목사
섬역부장대표기도
안선자 목사
정보부장대표기도
조은주 목사
선교부장

회 모범정관 및 재정운용규칙에 대해 실제 교회에서 활용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었다.

둘째날 회원들은 녹동교회 인근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오묘한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며 찬양했다.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둘째날 부흥회에서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를 강사로 왕상 3:4-14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

성을 다하여 감당하므로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교역자들은 특히 종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국가안보와 교회를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시간시간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폐회예배에서는 여교역자국 지문 신동숙 목사가 렘 29:11-13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설교와 특강을 통해 사명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담임
백영자 목사세미나가 열린
녹동순복음교회 전경

2018 타교단 가입자 연수교육

1. 일 시 : 2018. 4.12(목), 19(목) 2회(시간은 세부일정 참조)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3. 대 상 : 타 교단에서 본 교단에 가입한 교역자로서 연수교육 미필자
4. 등록금 : 50만원(입금계좌:국민 061701-04-17686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등록마감 : 2018. 4. 6(금) 17:0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양인 / 총무 목사 엄기철

6. 연수과목 및 세부일정

4월 12일(목)	4월 19일(목)
11:00~11:50 교단신조 I	11:00~11:50 교단역사
12:00~12:50 점심식사	12:00~12:50 점심식사
13:00~13:50 교단신조 II	13:00~13:50 교단헌법
14:00~14:50 성령론	14:00~14:50 총회행정
15:00~16:00 구원론	15:00~16:00 시험



문의 : 02)2675-5181-3

목양포커스

김항주 박사 // Mikelmel University 조직신학 교수 및 학장 · M Life Christian University 조직신학 교수 및 학장 · 대한신학대 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로마가톨릭과 한국NCCK 직제 통합이 부당한 이유(1)

신부를 통해 고해성사를 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굴복시켜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한국 NCCK가 직제 연합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배도행위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종교개혁의 3대 교리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3대 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집약된다.

- 1.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는 로마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행위주의와 반대 된다. 구원 받기 위해 어떠한 율법에 의한 행위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성경의 권위이다. 이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동일하거나 성경 위에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즉 교황은 인간이므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교회 앞에 무릎의 권위를 가질 수 없다.
- 3. 만민 제사직이다. 이는 성도가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게 된다. 신부를 통해 죄를 용서한 받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위에 요약된 3대 교리에 비추어 보면 로마 가톨릭교회가 타락한 결과는 참담할 정도의 수준이었다. 행위를 주장한 나머지 속죄권을 팔아 엄청난 돈을 모았고, 성경을 뒤로 돌리고 교황에게 복종을 요구하여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했으며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을 통해 수천만의 인명을 죽였으며, 제사를 탈취하였으며, 그리고 신부를 통해 고해성사를 하게 함으로 성도들을 굴복시켜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한국 NCCK가 직제 연합 운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배도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성경대로 3대 교리가 품고 있는 교리를 로마 가톨릭 공의회 의 세부 조항에 따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비 성경적 진상을 밝혀내고자 한다.

- 1.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6-17, 롬 3:28, 갈 3:26, 엡 2:8-9, 딤후 3:5)는 주에 반하여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리들을 주장하는데 대한 문제와 해답을 정리하려고 한다.

1) 가톨릭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로마교 교회헌장 제 14항 제 1편). 이 문제는 세례를 비롯하여 온갖 성사들과 기타 많은 선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율법을 선행하는 선한 행위를 하는 일에 있어 무율법주의가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선행함으로 (1)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하며 (2) 성도생활의 기준이 되며 (3) 신

양생활 뿐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롬 3:31, 갈 3:24, 딤후 1:8, 약 2:14, 26).

2) 가톨릭교회는 성례(Sacramento)가 구원 받는 데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주장하는데 세례(Baptism), 견신례(Confirmation), 성체성사(성찬, Eucharist), 고해성사(Penance), 병자성사(Anointing of the Sick), 신품성사(Holy Orders), 혼인성사(Matrimony)들이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이는 성례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참여자가 구원을 실행하는 의식으로 말한다. 의식 율법을 통해 구원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은 의식의 폐기 율례를 강조한다(행 10:9-16, 갈 2:14-16, 골 2:16-16). 우리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뿐이다. 이유는 3가지이다. 첫째, 신구약의 통일성. 둘째,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예식. 셋째, 사도들의 전승. 위의 3가지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7가지 성례는 비 성경적이다.

3) 가톨릭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것은 자만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는 공로가 있어야 구원의 영광을 얻는데 회개나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3편)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행위율법이나 의식율법의 공로 없이 확실한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요 5:24, 요 6:40,47, 롬 8:17, 뱌전 1:4, 요일 5:13).

4) 가톨릭교회는 죄의 정도(Degrees)에 따라 죄사함의 경중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죄의 평가도 경중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큰 죄 즉 영원이 죽을 죄가 있고 작은 죄 즉 용서 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3편)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아무리 큰 죄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또 아무리 작은 죄를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요일 3:4, 롬 3:23, 약 2:10). 그러므로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5) 가톨릭교회는 그들의 교회로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원의 보편적 보조 수단인 그리스도의 가톨릭교회를 통해서 구원 방법의 모든 종족에 도달할 수 있다(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교령 3항 제 1편, 교회헌장 14항 제 1편, 48항 제 1편, 선교교령 6항 제 1편)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어느 누구든지 직접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중간에 가톨릭과 같은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가톨릭교회를 통해 구원에 도달한다는 말은 비 성경적이다(3:16, 18, 36, 5:24, 6:40, 47, 롬3:24, 엡1:7, 롬23:42, 43).

6) 가톨릭교회는 세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 성경에 없는 “천히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라고 주장하여 세례를 통해 죄에서 해방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요 1:12, 고전 1:17, 행 16:30-33, 18:8, 엡 1:13)고 가르치고 있으며 세례는 구원 받은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의식이다(행 8:12-13)라고 가르치고 있다.

7) 가톨릭교회는 성찬을 성체성사(Eucharist)로 부르는데 성도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찬은 성도를 그리스도와 결합 시켜줄 뿐 아니라 죄인의 실제적 죄를 정화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준다. 이는 화체설(Substantialism)이 그 교리적 배경이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즉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적 살과 피로 화해진다는 묘한 교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성찬에 성령의 임재설을 말한다. 우리는 성찬에 있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요 6:49-58, 고전 11:23-29)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하며 성도간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8) 가톨릭교회는 성찬(성체성사)을 죽은 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완전 성화 되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죽은 신자들을 위해 살아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빛과 평화를 위해 성체성사를 행한다(트렌트 공의회 DS 1604, 제 2편).

이러한 허무맹랑한 허황되고 매혹적인 말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진술할 것이며(롬 14:12)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만이 존재한다(히 9:27)고 말씀하고 있으며 믿지 않은 그자가 진노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요 3:36).

다음호에 계속

사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3월 30일 서울대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ROTC 중앙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북한) 핵문제는 미북 간 문제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미북 간 문제로 생각한다면 기본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전 유엔 사무총장은 “비핵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공이 미국에 넘어가고 우리의 주도권은 없어진다”며 문제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폐기를 강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신뢰’를 전제로 했는데, 지금은 의심도 갖고 따져야 한다”며 “우리가 소신을 갖고 대북정책을 하는지 약간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반전 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을 막겠다는 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다. 북핵을 다 폐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중 회담을 통해 북한은 속내를 또 드러냈다. 25년간 핵개발을 위해 써먹었던 ‘단계 조치’ 주장을 또 들고 나온 것이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원하는 트럼프 구상과는 배치된다. 그런데 한국 청와대의 입장이 북한의 주장을 따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청와대가 “핵을 한꺼번에 폐기한 후 보상을 하는 리비아 방식은 북한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한 것은 미국의 요구심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리비아 방식은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 왔고 청와대도 그동안 “단칼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일괄 타결 방안을 표명해 왔다. 그런데 북중 회담에서 비핵화를 “단계적, 동시 조치”로 하겠다고 하자 그 입장에 장단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북핵을 얹어려면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여도 힘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이 아닌 북한과 한 팀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다. 흡족해 했던 한미FTA 타결 최종 승인을 정상회담 뒤로 미룬다며 의미 있는 경고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단계적, 동시 조치’는 그동안 북한이 전 세계를 향

해 기만과 술수로 속여 왔던 전략이다. 반전 총장의 우려처럼 북한에게 끌려 다니다가는 북핵 해결의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 보내고 한·미 동맹까지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등 다양한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술단 등 북한과의 교류를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 구상을 밝히는 등 미국과는 상반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이 한국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조율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한국 입장은 선명해야 한다. 단계별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를 앞장선다는 말과 다름 없다.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 간 북한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잘라 단계별 보상을 받으면서도 핵 폐기엔 불응하며 고농축우라늄까지 개발했다.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데 대해 유엔은 고강도 제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한·미가 선의에 기반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일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 중국을 향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관철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선명하게 밝히야 한다. 남북 교류가 잘못된 신호로 오인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북집단 양상으로 전개되는 안보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확고한 방향설정이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지도자는 설득력을 잃게 된다. 모호록 어렵게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또 다시 수십년 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그 어떤 예측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1천 2백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 아하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읍,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리라 하시니라”(눅 19:40)

일제시대를 겪고 아직도 교회는 잠잠하는가 대한민국이 최대 위기입니다.

청와대와 모든 기관을 장악한 김일성 주체사상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왜 거리로 뛰쳐 나오지 못하는가?
민족에게 고통을 준 이완용이가 될 것인가?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